

King's Way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16년 성경학교 주제 = King's Way

“예수님을 만나는 길” King's Way(×3)

길은 사람이 자꾸 다니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은
사람들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길이에요.

선물은 그냥 받는 것 = 선물한다.(홍성운)

왜 받았나요.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King's Way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1. 가나 사람 나dana엘 : 나를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dana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 착한 사람으로구나”

“어, 저를 어떻게 아세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단다.”

“나는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다 알고 있어.”

나dana엘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군요.”하고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예요.

여러분, 혹시 엄마에게 거짓말 한적 있나요.

엄마 몰래 동생을 때린 적이 있나요.

그런데 엄마는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속상한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화나는 것도 다 아세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예요.

2.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어요.

우리도 거기에 가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깐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Kings Way~~”

그런데 가버나움에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중풍병에 걸린 아저씨예요.

이 병자는 꿈쩍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많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간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병든 친구를 끈으로 달아서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죄가 용서 받았단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중풍병자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Kings Way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깨끗하게 고쳐 질 거예요. (오줌싸게, 나쁜 병)

3. 여리고의 소경 : 활짝 눈을 떴어요.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 아저씨는 앞에 보이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아파서 앞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뽀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디메오 아저씨는 매일매일 캄캄한 밤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도 ○○○ 만나면 눈이 고쳐질 거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길로 갔어요. Kings Way~
그리고 외쳤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아주 작은 소리로.
“예수님, 예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아이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소리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어 무슨 소리가 들리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 주셨을까요?

맞았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바디메오가 King's Way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눈을 떠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불러 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4. 다메섹의 바울 : 모두 변화됐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고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내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면 혼내줄 거야.”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하늘에서 비쳤어요.

“아~, 눈부셔. 눈을 뜰 수가 없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느냐?”

“누~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뭐라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구요.”

사울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변화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 후 부터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길이 King's Way랍니다.

결

가나사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King's Way

가버나움에 살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King's Way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여리고에 살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King's Way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활짝 눈을 떴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King's Way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차례예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King's Way

어디? King's Way

King's Way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현대교회 어린이가 되기 바래요.